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설업계는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아직도 IMF 외환 위기의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벼랑 끝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해 건설 수주 실적, 건축 허가 면적 등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998년 이후 장기 침체에 대한 상대적인 반등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 투자의 규모는 199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에 비하여 1998년에는 10.1%, 1999년에는 10.3%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69조 1,300억원으로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3월 및 1/4분기 중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국내 건설 수주액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발주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년 동월에 비하여 27.2%, 전년 동 분기에 비하여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 관련 전망을 살펴보면, 2001년의 건설 계약 실적은 2000년에 비하여 4.5%, 건설 투자는 2.2%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상당 기간 건설업 경기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대 건설업체들 중 38개 사가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의 관리 상황에 있고, 고려산업개발의 부도와 현대건설이 처한 유동성 위기는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최근에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설비 투자 및 수출입 감소,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하여 장기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침체가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경제의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나마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올해 1/4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소비 지출이 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제 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일본 경제의 침체 전망에 따라 IMF도 일본 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에는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과거 오랜 기

간 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문화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 발전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부와 기업의 정경 유착, 재벌을 위주의 계열 하청 구조,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방식, 경직된 고용제도 등이 일본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1]. 이는 일본 경제의 근대화 과정이 결국은 선진국의 경제 발전을 추격하는 과정이었고, 우리가 직면했던 경제 발전의 요구에는 선진국의 경제 발전 과정보다는 일본의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지름길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일본의 행태를 예의 주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버블 경제의 붕괴라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에 비하여 먼저 불황을 맞이하였던 일본의 건설업계는 어떠한 궤적을 그렸으며, 일본 상장 건설업체들의 경영 실적은 어떠한 변화를 나타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는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 건설산업의 발자취를 좇아보고 일본 상장 건설업체들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우리 업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헤이세이(平成) 원년인 1989년부터 건설산업의 부침을 가늠하게 하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일본 건설산업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필두로 하여, 동 기간 동안 일본 상장 건설업체의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를 분석하였다. 일본 상장 건설업체의 재무 정보는 일본의 동양경제신보사(東洋經濟新報社)에서 발간하는 회사연감의 일종인 「회사 사계보(會社四季報)」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1부 상장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1988 회계연도부터 1999 회계연도까지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버블 경제의 붕괴가 건설업계에 미친 영향의 정도와 주요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재무 상태를 수익성의 측면과 재무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일본 상장 건설업체들을 매출액 규모별, 자본금 규모별, 주력 공종별로 유형을 구

1) 임천석, 1997.

분하고, 각 유형별로 수익성과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유형별 기업 집단이 위기를 경험하는 데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IMF 외환 위기 이후의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였고, 제Ⅱ장은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직전인 1989년(헤이세이 원년) 전후의 경제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여 일본의 거시경제와 건설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Ⅲ장은 1988 회계연도 이후 1999 회계연도까지 12년 간 일본 상장 건설업체의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의 추이를 살펴보고 버블 경제의 붕괴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였다. 제Ⅳ장은 상장 건설업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재무 구조 및 경영 실적을 분석하였다. 제Ⅴ장은 제Ⅳ장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장 건설업체들의 1996년 이후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실적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